



The Washington Post
Wednesday, Oct. 18, 2006; Page A20

Virginia's Senate Race James Webb mounts an independent-minded challenge

"버지니아 주 상원 선거" - 제임스 웹 후보가 독립적 자세로 도전할 준비를 갖추었다.

;민주당 짐 웹 후보를 공식 지지한 워싱턴 포스트 사설 (2006년 10월 18일 수요일)

정치초년생인 민주당의 제임스 웹 후보와 화려한 정치 경력과 대중친화적 명성에 최근 상처를 입은 공화당 조지 알렌 상원의원이 펼치는 버지니아 상원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화당 현역의원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 것 같던 상원 선거전이 접전으로 진행된 데는 알렌의원도 인정했듯이 스스로가 만든 오점에 버지니아 유권자들이 실망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렌 의원의 과거 행적 때문만이 아니라 지난 6년간의 실망스러운 상원의원 의정활동이 그가 재신임 받기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알렌의원의 상대 후보는 해군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수석 보좌관, 해병대 장교 그리고 공화당원이기도 했던 전향적이고 독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민주당의 웹 후보는 이미 지난 2002년, 이라크 전쟁에 대해 철군 계획 없는 장기 주둔 전략은 위험한 것이라는 경고를 하며 오늘날의 위기를 미리 예견한 바 있다. 진성성을 갖춘 지성인으로서 정치적 유혹에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군사 지휘 경험과 국제 정세에 대한 탁견 등이 연방 상원의원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한다. 특히 그의 막내 아들이 해병대원으로서 이라크 전에 참전하고 있다는 것 역시 기존 의회의 여느 정치인들과는 차별성을 느끼게 한다.

유명 작가 출신인 웹 후보는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아직은 채울 부분이 많은 미완의 정치신예이다. 국내 정책들에 대한 해안도, 버지니아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가 정치인으로서 짧은 경력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웹후보의 국내 빈부 격차 증가에 대한 진단은 주목할 만 하지만 자유 무역에 대한 틀린 처방책을 제시하는 오점을 보이기도 했다. 선출직 출마후보로서 웹 후보는 급격한 수련 커브를 지나고 있으며 그 자신도 이러한 점들을 수긍하고 있다.

반면 알렌의원은 당파적 이해를 뛰어넘는 독립적인 자세가 극히 부족하다. 알렌의원은 정부 재정 적자를 악화시킨 감세안을 정부안 그대로 받아 들였으며 정유 회사들에게 불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도 찬성했고 미국을 반 인권국가라고 인식하게 만든 테러 심문법 찬성은 물론 줄기 세포 연구 제한도 동의하면서 상원의원 재임 기간 동안 부시 행정부의 정책라인을 그대로 수용해왔다.

또한 알렌의원은 버지니아 주의 가장 역동적인 지역인 북버지니아를 위한 의정 활동이 미흡했다. 알렌의원 외의 버지니아를 대표하는 연방 의회 의원들인 잔 워너 상원의원이나 탐 데이비스 하원의원, 프랭크 울프 하원의원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적인 노력을 경주해온 데 비해 알렌의원은 2000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에만 골몰해온 느낌이다.

상원의원으로서 알렌의원의 활동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선심성 예산 책정과 유권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만약 그런 활동들이 그가 이뤄낸 더 넓은 행적의 일부라고 보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알렌의원은 그러나 첨단신기술인 나노테크놀라지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전통적으로 흑인계라 할수 있는 대학들에게 텔리커뮤니케이션 기초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법안 등 몇몇 법안을 제외하고는 그의 입법활동은 상원으로서의 충분한 무게감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더 높은 수준의 나은 대표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민주당의 짐 웹 후보가 그런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